

# 2011.7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 MBC

# 2011년 7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대전문화방송

## 1. 회의개최

일시	장소	참석인원 수		비고
		위원	방송국	
2011.7.27	대전MBC 대회의실	9/11	6	

○시청자위원 불참자(2명) 명단: 여운철, 김경숙 위원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 고대석 사장, 강덕원 경영기획국장, 김미리 편성제작국장, 임양재 보도국장, 정갑관 기술국장, 장래균 기획심의 부장

##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8	9	-	2	19	-	19

###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계
건수	2	17		19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1 건	1건	
	프로그램 진행자와 뉴스 앵커의 의상이 가끔 눈에 거슬린다.	코디네이터에 비로 시정조치 함	2011.8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해당사항 없음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분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교양	<시사플러스> '일제고사가 뭐기에...'는 조목 조목 문제점을 잘 짚었다. 다만 학생들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내용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김경옥,유치벽 위원)	좋은 지적에 감사한다. 프로그램 제작시 반영하겠다.	편성 의견참고
교양	<시사플러스> '지하수의 두 얼굴' 편은 흐름이 매끄러웠다. 그러나 다소 대안이 부족한 느낌이 들었다. 간접광고에 대한 모자이크 처리가 확실했으면 좋겠다. (신현대 위원)	법적으로 대안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간접광고 예방에 주의하겠다.	편성 의견참고
교양	<건강플러스>는 구성 좋고, 건강 프로로서 우수하다. 그러나 아이템이 전문적이고 용어 표현이 다소 어려울 때가 있다. (신현대 위원)	칭찬에 감사하다. 보다 시청자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용어를 편안하게 풀어가겠다.	편성 의견참고
보도	<뉴스초점>은 음향의 높낮이가 발생해 방송이 매끄럽지 않을 때가 있다. (신현대 위원)	기술국과 협의 해 기술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	보도 의견참고
기타	프로그램 진행자와 뉴스 앵커의 의상이 가끔 눈에 거슬린다. (방기봉,김진국 위원)	코디네이터에게 바로 시정조치하였다. 더욱 신경쓰겠다.	보도, 편성 수용
보도	<시사분석> 패널 선정시 대표성은 있는가, 중복되지는 않는가에 신경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제 선정시 다소 진부한 느낌이 든다.(김진국 위원)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줘서 고맙다. 앞으로 패널들의 대표성 문제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	보도 의견참고
교양	<시사플러스> '원도심이 사는 법'편은 대안이 부족하고, 주차장 문제만 다뤄 아쉬웠다. (유치벽 위원)	항상 대안있는 프로그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편성 의견참고
기타	아나운서들의 표정에서 피로가 느껴진다. 대책이 있었으면 한다.(안정선 위원)	회사 차원에서 아나운서들의 인력 보강에 노력하고 있다.	편성 의견참고
보도	뉴스 아이템들이 스마트해졌다. 발전을 지켜보겠다. (안정선 위원)	감사하고 더욱 노력하겠다.	보도 의견참고
보도	뉴스데스크 끝나고 스포츠 뉴스 연결시 자연스러웠으면 좋겠다.(안정선 위원)	전담피디가 아닌 일반 기자가 진행하는 주말에 주로 발생하는데 교육을 통해 개선하겠다.	보도 의견참고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교양	<시사플러스> 진행자 교체 후 세련되고 진행이 매끄러워졌다. 소재는 다양해졌고 문제점, 갈등, 대안을 짧은 시간에 잘 소화한다. (김재영 위원)	좋은 칭찬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겸허한 자세로 프로그램 발전에 힘쓰겠다.	편성 의견참고
교양	<시사플러스> '대리기사' 후속보도와 '조력발전' 편이 좋았다. (김재영 위원)	지금처럼 후속보도를 통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	편성 의견참고
교양	<시사플러스>는 갈등 아이템만 아니라 따뜻한 아이템도 다뤘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전 중심의 아이템을 의도적으로 지양해 달라 (김재영 위원)	앞으로 따뜻한 소재, 포근한 아이템도 다루도록 하겠고 대전 중심에서 탈피해 충남 전체를 아우르도록 하겠다.	편성 의견참고
보도	<뉴스데스크> 단독 앵커가 호흡이 딸리는 느낌이다. 그리고 스트레이트 기사가 줄었으면 좋겠다. (김재영 위원)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으로, 회사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도 의견참고
보도	'보령 머드축제' 스트레이트 처리 아쉽다. (김영광 위원)	토요일 저녁에 개막식을 했기 때문에 일요일에 현장 리포트 처리했다.	보도 의견참고
보도	'차량이 전도됐다'는 '차량이 넘어졌다'식으로 용어를 풀어썼으면 좋겠다. (김영광 위원)	뉴스에 반영하겠다.	보도 수용
교양	<시사플러스> 진행자 앓는 방안도 고려해 보라. 보다 차분해 보일 수 있다. (김영광 위원)	진행 방법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하는 중이고 더 좋은 시청자 만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편성 의견참고
교양	어린이가 신나게 노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장인순 위원)	차기 개편 회의시 논의해 보겠다.	편성 의견참고
보도	따뜻하고 행복한 뉴스가 많았으면 좋겠다. (장인순 위원)	더욱 노력하겠다.	보도 의견참고